

建築學會 洪鵬羲 會長



自宅를 訪問하겠다는 編輯者의 전화에 洪先生님은 저의들의 바쁜 시간에 그럴필요 없이 '내가 직접 가까운 곳으로 나가겠어요' 하신다. 그래서 12月 20日 日曜日 午後 3時 本部 근처의 H茶室에서 洪先生님과 人事를 나누었다.

編: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洪: 「오히려 이쪽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어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말예요」

編: 「저의 건축사협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洪: 「네, 제가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協會의 代表者들이 1주일에 한번씩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세 단체가 보다 화목하고 친밀해 질 수 있고 건설적이며 발전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編: 「혹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洪: 「네, 우리 세協會가 共同主催가 되어서 高層建物 建立을 위한 종합적인 建築講演會를 한번 웅장하게 갖어 봤으면 해요. 강사로서는 세계적인 大家들을 國內에 초빙해서 말씀예요. 얼마전에 서울에서 개최한 世界 PEN 大會 처럼 말입니다」

編: 「정말 말씀만 들어도 흐뭇한 느낌입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이제부터 視野를 넓힐 수 있는 始点에서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洪: 「그렇죠! / 이제 우리 세 기관 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아니겠어요. 學會는 연구기관인 만큼 더욱 연구를 토대로해서 나가야 할 것이며 家協은 家協대로의 作家的인 개성미가 있겠고, 특히 「건축사」誌는 一線 業務에 종사하는 것인 만큼 會員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뭔가? 를 우선 알아야 할게 아니겠어요? 또한 편집자는 一線 건축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하는 点도 연구해서 그 方法을 잘 연구하고 취사선택해서 나간다면 훌륭히 발전될 줄 믿습니다. P. R에 치우치지 말고 '디테일'이나 기능적인 제시를 해야 하겠죠」

編: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洪: 「저의 學會誌는 연구를 70%로 하고 '데이터'를 30%로 하고 있는데 비해 「건축사」誌는 실질적인 內容을 70%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編: 「저의 잡지에 게재되는 「會員作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洪: 「역시 會員作品이라면 각기 그 作品마다 特異性이 있어야 겠어요. 구조라든가 '디테일'한 点이며 材料 또는 施工法 等等 그 作家의 남다른 個性적인 것을 바라고 싶어요. 그리고 亦是 「건축사」誌는 會員 서로간의 對話의 廣場을 마련해서 마음의 궁금증을 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믿음을 주어야 하겠죠.」

編: 「이밖에 참고로 해 주실 말씀이라도.....」

洪: 「역시 建築家도 藝術家가 아니겠어요. 自己가 설계한 作品이 준공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장본인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준공도 하기 前에 사람들이 建物を 짓밟고 손을 대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 봅니다. 文學家나, 藝術家들은 自己의 作品은 自己의 分身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겠어요. 오히려 建築家야말로 自己의 설계에 의해서 세워진 그 건물은 마치 내 자식 같은 애착이 가는 것이니 말예요. 建物の 大小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編: 「끝으로 士法 22조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洪: 「一部 學會에서 삭제의 지지를 하는 듯한 인상으로 士協에서는 오해를 한듯 합니다만 士協의 姜奉辰會長任과 더불어 세協會는 더욱 우의와 信心協力해서 나간다면 建築界에는 큰 發進이 오리라 믿습니다」

編: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